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 46:5)

사순절 시작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2월 22일(수)부터

청년1부 겨울 수련회

주제: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귄(요일 4:11)

일시: 2월 23(목)~25(토)

장소: 충현 기도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 구호 헌금 안내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수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지역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급이 끊기고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진 피해 지정 헌금은 긴급 구호기금과 재난지역 피해복구 및 필요한 생필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헌금은 지명 헌금 봉투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받는(입금)통장에 '지진피해', '지진', '튀르키예', '시리아' 등 식별 문구를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길동 지진피해)

온라인 헌금 계좌: 하나은행 225-910071-95904 /
대한예수교장로회충현교회

25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평생 동안 중국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습하는 ‘곡’을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 전 단원이 ‘조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오케스트라가 ‘한 음’을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분주한 일상을 앞두고 삶의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의 비결은 바로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영혼을 조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새가족 등록 안내

오늘 충현교회에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아직 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께서는 등록하셔서 더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 장소: 본당 출구 로비(좌측) 새가족등록실

등록 시간: 주일 09:00~15:00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학술 컨퍼런스

溫忠知新 [온충지신]: 충현을 앞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한국 교회를 회고하고, 현재를 조명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에서 보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2023년 3월 11일(토) 10:00~15:00

장소: 충현교회 본당

대상: 충현교회 성도 및 관심있는 목회자

회비: 무료(자료집 및 오찬 제공)

등록: 충현교회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등록 (사전 등록 필수)

문의: 권혁근 목사 (02-552-8200 내선 507)

패널토의 진행: 한규삼 담임목사



강의 1. “초기 한국 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

이만열 교수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및 이사장 역임

국사편찬위원장 역임



강의 2. “포스트 코로나 보수 교회의 역할”

조성돈 교수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신학박사

살전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장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강의 3. “통일한국을 위한 교회 역할과 준비”

하광민 교수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 선교학박사

충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교수

충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장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지난 주일(2월 12일) 설교 되새기기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5:9-15)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믿음의 3대째였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9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공식’은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복’은 우리의 뜻대로 아무 근거 없이 구하는 ‘기복’과는 다릅니다. 야곱은 언약을 의지함으로 베엘로 돌아오는 천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리고 베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창35:1)” 밧단아람에서의 긴 타향살이 끝에 야곱은 마침내 베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몫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팔죽한 그릇에 양도받았던 야곱은, 연로한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틈을 타 형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축복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을 ‘베엘’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28:14-15)”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새로운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1-22)”이었기에, 야곱이 서원했던 바로 그 장소 베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았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장소, 베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야곱을 베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축복과 언약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불리는 구절마다 야곱에게 부여된 축복권을 드러내며 이를 강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창32:28)” 압박강가의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생명을 걸고 씨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 끝에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10절)” 창세기 32장에서 이름을 바꾼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엘에서 다시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이후를 살펴보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

름이 계속 야곱과 혼용되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특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재회하고 애굽에 정착하게 될 무렵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권의 모습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창48:15-16)” 애굽으로 내려갔을 당시 130세였던 야곱은 임종에 앞서 열 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을 통하여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실상 야곱은 고단하고도 역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기약없는 도망자였고, 외삼촌의 집에서는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압박강 씨름 사건 이후에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창47:9-10)” 이토록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한날 나그네였던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의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누구보다 평안했던 이유도 그가 받은 축복 덕분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성경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그가 붙들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담긴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80대 중반의 집사님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38년 동안 병상에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아들을 축복해준다면 제 아들은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바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축복받기 어려울 듯한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시되 점차 축복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넓혀갈 가장 좋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명령하시며 주신 축복권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 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Your Name will be Israel

(Genesis 35:9-15)

Rev. Kyu Sam Han

The covenant of God was expanded more and more through Jacob who belonged to the third generation of faith after Abraham and Isaac. "After Jacob returned from Paddan Aram, God appeared to him again and blessed him." (v.9). The covenant formula that God gives blessings to those who come back to God is the fundamental truth that believers should keep in mind.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Ge 1:28). When God created man, He wanted to give him blessings. 'Heavenly blessing' that God gives on the basis of the covenant is different from 'the blessing of wish-fulfillment' which we seek according to our own will without any grounds. Through relying on the covenant, Jacob could enjoy the Heavenly blessing of coming back to Bethel.

Jacob, and Bethel

"Then God said to Jacob,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and build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were fleeing from your brother Esau." (Ge 35:1). At the end of sojourning long in Paddan Aram, Jacob came to return to Bethel at last. Jacob, who took over the birthright which was the share of his brother Esau by a bowl of lentil stew, took advantage of his old father's weak eyes and disguised himself as the appearance of his brother Esau and received the blessing. God met Jacob who fled from his brother's wrath at 'Bethel'. "Your descendants will be like the dust of the earth, and you will spread out to the west and to the east, to the north and to the south.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I am with you and will watch over you wherever you go, and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e 28:14-15). God renewed the covenant He had made with Abraham for Jacob. He made with Jacob a new promise of blessing that He is with Jacob, will bring him back and will not leave him. And this covenant was accomplished as the appearance of coming back to the very place 'Bethel' where Jacob had sworn saying, "so that I return safely to my father's household, then the Lord will be my God and this stone that I have set up as a pillar will be God's house, and of all that you give me I will give you a tenth." (Ge 28:21-22). I hope you and I also have 'Bethel', the place of blessing where we remember again the covenant that we have received before and rebuild ourselves before God

New name, Israel

God, who brought Jacob back to Bethel, changed Jacob's name to Israel. It meant Jacob would be the foundation of Israel, a nation which would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and that God would make the realm of His blessing and covenant expanded through Jacob. The Bible reveals and emphasizes the right of blessing granted to Jacob in whatever phrases in which Jacob's name is called Israel, the changed name.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humans and have overcome." (Ge 32:28). In 'Peniel' by the river 'Jabbok', Jacob wrestled with the angel of God for his life through the entire night. The name 'Israel' was the blessing which he gained after the severe fight incomparable with the fight he had when he stripped his brother, Esau of his birthright. "God said to him, "Your name is Jacob, but you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your name will be Israel." So he named him Israel." (v.10). Even though Jacob had received the blessing of changing his name in Genesis 32, he didn't seem to change his name completely. Therefore, God called Jacob Israel again in 'Bethel'. Examined after Genesis 35, though the name Israel is continuously used mixing with the name of Jacob, 'Israel' is used more often towards the latter part of Jacob's life. Particularly, from the time when he reunited with his

son, Joseph who, he thought, was dead, and settled in Egypt, the name Israel is more often used. Jacob's life was changed into the life of blessing others. To be able to bless someone was the essential feature of Jacob's blessing from God.

The feature of blessing right Jacob received

"And he blessed Joseph, and said: "God, before whom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walked, The God who has fed me all my life long to this day, The Angel who has redeemed me from all evil, Bless the lads; Let my name be named upon them, And the name of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And let them grow into a multitude in the midst of the earth." (Ge 48:15-16). Jacob who was 130 years old at the time of going to Egypt blessed all of his twelve sons before death. He explained about the works of God in his life through the blessing of Joseph, the son whom he loved most. Jacob confesses 'God fed him all his life long' and 'He redeemed him from all evil'. In fact, Jacob lived an exhausting and unfair life. Though he intercepted his brother's birthright, he was a hopeless fugitive, and a victim who was exploited at his maternal uncle's house. Physically, he became a handicapped man who became lame after the wrestle by the river Jabbok.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days of the years of my pilgrimage are one hundred and thirty years; few and evil have been the days of the years of my life, and they have not attained to the days of the years of the life of my fathers in the days of their pilgrimage. So Jacob blessed Pharaoh, and went out from before Pharaoh." (Ge 47:9-10). Even though Jacob lived such a rough life, he confesses God provided all of what he needed. That is the grounds that Jacob, who was only a stranger, could bless Pharaoh the king of Egypt. It's because blessing is not what the high can give to the low but what the spiritually abundant can give. After Jacob received the name Israel, the feature of the right of blessing which he received from God came to be revealed through his life. The reason why Jacob was more comfortable than anyone else at the last moments of his life was due to the blessing that he received. Jacob was confident that God who 'fed and redeemed him from all evil' would be with his children.

The highlight the Bible showed through the life of Jacob was the covenant he held on to. There is the right of blessing in the covenant. What was contained in the new name Israel was God's blessing according to the covenant. We, who became new people of Israel through Jesus, also have the right of blessing. It was around the time when I was beginning the ministry for the immigrant. A deacon, who was in his mid-eighties at that time, had a son who had been sick in bed for 38 years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The deacon said, "If there is even one person who blesses my son, my son would not be discarded. Therefore, what I wish is that I live longer than my son." I believe to bless even only one person for whom it may be most difficult to receive blessing could be the way of using the God-given right of blessing. I hope you bless first the person close to you with true heart of serving, and then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blessings little by little. It is not only the blessing given to us who are living holding on to the covenant but also a best spiritual weapon with which we expand the covenant of God in the world.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the blessed believers who hold on to the covenant and go out to the world, remembering the right of blessing God gave to Jacob through ordering "Your name will be Israel."

영역·이울의

주간
충현

중보기도부 '제5회 헌신자의 날'을 마치며

지난 2월 11일 (토) 중보기도에 관심있는 분들과 현재 9차 중보기도 헌신자들, 10기 중보기도 훈련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응답자의 간증과 헌신자들의 고백을 듣고 섬김을 격려하며 재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현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인 중보기도의 자리에 많은 충현의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중보기도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한 시간 기도한 후 다음 성도에게 바통을 넘기고 훌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 시간의 의미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 한 시간은 나를 중보의 심연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다. 도화선에 불씨가 점화된 후부터 기도실에서 본 중보 요청카드가 불쑥불쑥 일상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혹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중보기도를 한다. 기도할수록 중보기도 서약이 자꾸자꾸 기도의 축수를 건드린다. 기도하라는 요청이 임하는 순간 나는 마음에 저장된 중보 요청카드를 뜯는다. 잡자리에 누워서, 밥을 먹으며, 길을 가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느헤미야 2:4)한다.

기도를 요청하는 삶들은 애절하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카드를 보면서 음성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카드를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음성 언어로 감당하기에 벅찬 삶들을 만난다. 너무 아픈 삶들 앞에서는 가슴이 먹먹하여 기도가 막히기 일쑤다. 결국, 음성 언어의 한계에 이르고 만다. 나는 주께 질문한다. “언어가 고갈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요?” 다행히 주님이 답을 주셨다. 주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도의 방편은 눈물 언어다. 어찌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눈물을 통과한 중보를 받고자 하시는 걸까? 눈물 언어로 중보기도 한 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영혼의 정화다.

중보기도자로서 알게 된 것은 내 삶과 교우들의 삶이 유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내 삶은 교우들의 삶과 바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나와 교우들과 연결된 그 합을 붙들고 계신다. 이 합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나의 삶의 궤적이 중보기도에 깊이 사용됨을 깨닫는다. 환우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의 아픔이 떠올랐고 잉태를 원하는 간곡한 요청에는 생명을 위해 지인이 감내했던 기나긴 인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재정 문제 해결을 구하는 요청에는 수입의 단절로 막막하던 허기의 경험이 적용되었고 내적 치유를 기도할 때는 피눈물로 흥건하던 나의 상처를 보며 요청자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었다. 내 삶의 총합이 모두 중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깨달음에 나는 전율했다.

중보기도실에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묶어놓은 두툽한 중보 요청카드가 있다. 절박한 심정을 카드에 토박토박 기록하였을 기도 요청자들을 생각하면 한 장 한 장 카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벼운 카드는 단 한 장도 없다.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천 근이다. 이 중한 사명을 감당하자면 나는 단단한 기도자가 되어야겠기에 스스로를 단련한다.

기도 요청카드는 중보기도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 카드가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다. 그곳은 내 마음이다. 내 손에 기도 카드를 지참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카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다. 나는 기도 카드의 내용을 상당 부분 기억한다. 심지어 어떤 카드 펼쳐까지도 기억한다. 내 마음에 저장된 카드는 수시로 내게 기도하라고 명한다. 나는 기도하라는 내적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중보기도자로서 나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 헌신자 정연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충현출신 선교사 지원

충현교회는 5대 목표 중의 하나인 ‘세계선교’를 위해 지난 7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 및 파송하였으며,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교회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충현출신 선교사 지원 제도를 시행코저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래 '지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영기 목사	김신숙 선교사	김영암 선교사	김형건 선교사	박태연 선교사	안석렬 선교사	장수진 선교사
네팔	이집트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수리남	카자흐스탄
정은희 평신도선교사	허요셉 선교사	홍정화 선교사	유재훈 평신도선교사	유창무 선교사	김경생 선교사	
수단	이집트	미얀마	멕시코	인도	네팔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④

4. 성경을 기도하라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을 때 진도에 쫓길 수 있다. 가령 하루 10장씩 읽으려고 할 때, ‘오늘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176절로 된 시편 119편이 걸렸지?’라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반대로 성경을 깊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한 장이나 한 절만 붙잡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양도 생각하고 질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 면에서 어느 정도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식을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양적으로 읽으면서도 질적으로 읽는 방법 중에 ‘성경을 기도하라’가 있다. 가령 하루 5장정도 읽으면 그 중 한 장이나 몇 절 정도를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말이다. ‘성경을 기도하라’는 얼핏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성경대로 기도하라. 성경을 따라 기도하라’가 문법적으로 맞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성경을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 자체를 기도로 바꾸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한 편으로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특별한 경건을 과시하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성경을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되 그 내용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다. 성경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우리 삶의 다양한 구석을 다 터치하고 우리 심리의 예민한 구석을 다 커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심리의 모든 구석을 다 터치하기 때문이다.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듯 기도를 성경으로 절이는 것이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성경으로 절이고, 성경을 기도로 절이는 것이다.

〈성경을 기도하라〉는 책¹⁾이 있다. 미국 남침례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도널드 휘트니(Donald Whitney)가 쓴 책이다. 복음 연맹(The Gospel Coalition)에 실린 이 책의 리뷰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가 많다. 목회자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는 의욕도 있고 각오도 하지만 매일 기도훈련이 좌절과 좌책감을 낳을 수 있다. 기도가 자유와 기쁨의 행위가 아니라 권태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즐거운 특권이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휘트니의 말대로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에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지루해 죽을 지경인가?” 문제는 간단하다. 매일 동일한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 닳아빠진 기도문 때문에 권태와 좌절에 빠진다. “다양성이 없는 기도는 결국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 해결도 간단하다. 성경을 기도하면 주의력이분산되는 것을 막고 매일 양질의 기도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기도하는가? “성경을 기도하려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된다.”

시편이 ‘성경 기도’에 특별히 유익하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을 다루고 본래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모든 신음마다 다루는 한 시편을 감동해서 주셨다.” 하루에 시편 다섯 편을 훑어가면서 그 중 한편을 기도하는 것도 ‘성경 기도’의 좋은 방법이다. 하루 시편 5편을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에 시편 150편 전체를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에 성경을 적용

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시편 외에 다른 성경 장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성경을 기도하는 것은 실제 해 봐야 가장 잘 배운다. 여기에 가장 큰 논쟁거리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나 기도해도 된단 말인가? 본문의 적절한 해석과 적용이 아니더라도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가? 이것은 성경의 의미를 읽어내는 주석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내 생각을 읽어 넣는 주입이 아닌가? 도널드 휘트니는 ‘성경 해석’과 ‘성경 기도’는 다르다고 대답한다. 전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후자는 “단지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를 정답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경적으로 완벽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인 관계에서도 완벽한 것만 말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휘트니의 〈성경을 기도하라〉는 꾸준한 기도를 하도록 실제적인 도전을 줌으로써 젊은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노력과 함께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 성숙의 과제이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 목회 사역을 한 존 파이퍼는 이와 관련해서 유익한 충고를 했다. “성경을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반복으로 전락한다. 하나님의 큰 목적보다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에만 맴도는 기도매이고 만다. 이것을 피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실존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풍성하도록 성경을 기도하되 바로 인용하고 바로 이해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초대 교회 들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을 기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 존 파이퍼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기도로 돌려 드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도로 올려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는 ‘축복의 서클’이 형성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도다. 시편과 바울 서신에도 기도가 많다. 성경이 기도의 모델이다. 성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려주기에 우리의 죄도 고백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 하신 것을 알려 주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알려 주어서 우리가 간구하게 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을 알려 주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한다. ‘성경을 기도하라’ 이것이 생소하고 막연할 수 있지만 이번엔 한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실천해 보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편집자 주 -

1)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서명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복있는 사람, 2016)이다.

2023년 중등부 겨울수련회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라(신 6:4-9)’의 주제로 지난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나 자신만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중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겨울수련회 참가하여 공동체 활동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특히 2일(목) 부흥회때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여 200여명의 인원이 함께 언약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는데 옆에 있어 준 학생회 친구들 덕분에 웃으면서 수련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촌장으로 서 마을에 소외되는 친구 없이 다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수련회 하면서 친구들끼리 친해진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첫째날 코스워크와 둘째 날 마을 운동회 하면서 이런 것이 공동체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흥회 때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마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위십을 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잠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일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은혜로운 설교 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학년 김주미 학생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떨리기도, 두렵기도, 설렘 가득하기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나에게 더욱 그랬다. 첫 아이의 첫 2박 3일 수련회!!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서 며칠을 지내본 적도 없었고, 수련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에 (걱정은 조금 되었지만) 기대가 되었다. 사실 수련회 첫날이 근우가 다니게 될 중학교 배정받는 날이라 기도원에 오후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침 시간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개회 예배시간에 맞춰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수련회에 들어가는 근우에게 “엄마도 중1 첫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어서 그 후로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어. 근우에게도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게”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보내줬다. 첫날 저녁 부흥회에 학부모 기도가 있어서 남편과 기도원에 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많은 추억을 가진 곳에 우리 근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였다. 저녁 부흥회 시간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갔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욱 세상의 것들을 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유혹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박 3일 겨울수련회를 은혜중에 잘 마치고 돌아온 근우가 “몸은 힘들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라고 담담하게 고백하였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흥분된 마음을 꺾고 누르며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근우가 되기를 계속 기도할게”라고 하며 꼭 안아줬다. 하나님께서 중등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와 넘치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충현의 모든 미래 세대들의 인생길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응원한다.

김근우 어머니(학부모)

처음 친구들을 수련회 자리로 초청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을 2박 3일 기도원으로 초대하는 건 쉽지 않았고 친구들은 생각보다 너무 바빴습니다. 학원과 숙제에 치여 사는 게 회사 일에 치여 사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함께 기도해주셨던 학생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원 숙제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꼭 같이 기도해주세요.”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저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오지 못했지만 수련회 내내 기도했습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과 저 또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꼭 만나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로 할 순 있는 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던 중등부 친구들의 열정과 목이 쉬어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신 목사님의 열정이 저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진 중등부 겨울수련회였습니다!!

구나연 교사



대한민국 피로회복

세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교인 헌혈**을 실시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를 돕는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헌혈 일시 : 2023년 3월 12일(주), 19일(주), 26일(주)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기간: 1월 30일(월)~3월 25일(토)까지

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 교구 및 부서 전달 링크를 통한 신청

헌혈장소: 본당 앞마당

헌혈대상: 헌혈을 원하는 65세 이하 성도(차세대위원회 적극 참여 요망)

문의: 오종학 안수집사(010-2744-2755)

※ 헌혈 기념품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수술비 적립을 위한 기부권으로 제공됩니다.



사랑부 다니엘반 교사 모집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양육교사, 행정교사, 교육교사, 활동교사

시간: 주일 10:30~12:30

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충현 평생 대학원 2day 스마트폰 기초 특강 신청



이제 스마트폰은 제3의 언어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스마트폰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 기초 사용방법을 2주간 토요일에 집중, 반복 교육하는 특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부터 기본적 내용들과 평소 궁금했던 내용까지 소수 정예반으로 구성되어 반복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번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강사로는 특별히 충현의 다세대인 청년들이 중심되어 섬겨 주십니다.

특강일시: 3.18(토), 25(토), 2주 연속 매주 토 오전 10시~오후 3시

(두 번 모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신청해 주세요. 1회 참석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특강장소: 충현교회 1교육관

신청기간: 2.12(주일)~ 2.25(토) 선착순 50명 으로 마감!

모집인원: 충현교회 성도 50명 내외 (1명의 강사와 5명의 수강생)

신청방법: QR코드로 구글 설문지나 문자로 신청 가능

수강료: 1만원 (두 번의 점심이 제공됩니다.)

문의사항: 김수경 권사(010-9780-9333)



충현 어린이집 원아모집



- 예수님 사랑 안에서 꿈을 품고 생각과 표현이 자라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충현어린이집입니다.

- 창의성, 합리적사고, 의사소통, 협업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사고력증진 수업, 놀이 중심교육, 그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충현어린이집'으로 초대합니다.

대상 | 만0세(2022년생) ~ 만5세(2017년생) (선착순 모집)

문의전화 | 02-554-7055

1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7명)

강막달 공인숙 김민호 김병하 김성하 김예정 김유라 박여호수아 변영돈 송치선 신세은 오나리 우승남 이재문 장순혜 장종근 정효준 조학동 최인아 최진형 최춘화 크리스머피 홍성창

교육위원회(1명)

고다엘 고영민 고정연 광도일 김도윤 김성준 김세인 김영현 김예성 김재준 김지성 배서현 안라온 유서연 이서호 이인규 이준규 조혜은 주기쁨 진호준 최시연 최재훈 한동현 한지영 홍아란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충현기도원 주방장 모집

대상 : 세례교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타교인은 담임목사추천서 각 1부
문의처 : 충현기도원(031-766-5425)

충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별세

- 1. 이덕순 타교권사(김홍열 안수집사의 모친·김명은 권사의 시모, 9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 2. 김봉덕 은퇴권사(김충식 장모·김충호 성도·김남진 성도·김은숙 권사의 모친, 박태선 권사의 시모, 6교구), (김숙 권사의 모친, 안중섭 집사의 장모, 9교구) / 9일 별세, 13일 장례
- 3. 장익제 타교장로(장인실 권사의 부친·김성한 집사의 장인, 9교구) / 10일 별세, 13일 장례
- 4. 이금옥 은퇴권사(김남식 안수집사의 모친·최영춘 권사의 시모, 8교구) / 12일 별세, 14일 장례
- 5. 서동수 타교성도(이금숙 권사의 모친·박차천 집사의 장모, 4교구) / 13일 별세, 15일 장례
- 6. 우순성 은퇴권사(김경희 권사의 모친·백남제 은퇴안수집사의 장모, 5교구) / 13일 별세, 16일 장례
- 7. 박난순 성도(조성옥 은퇴권사의 모친·김준호 성도의 장모, 6교구), (조성분 집사의 모친·김용광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 14일 별세, 16일 장례

예배 담당(2/22~2/26)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2/22	수요 I	거룩함의 이유 (레 11:41-45) 이다현 목사	박영환	김정숙
2/24	금요일집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한규삼 담임목사	윤준식	
2/26	주일 I	한 눈에 보는 레위기 (레 22:17-21, 29-33)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김세종
	주일 II		정석훈	한홍연
	주일III		윤준식	김열환
	주일찬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느 1:4-11) 김주한 목사	이기영	김광일

교구별 주력새벽기도(2/20~2/26)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0(월)	권혁근/최재필	마 12:31-37	7교구
21(화)	한규삼/김충식	마 12:38-50	전교인
22(수)	임진실/황석환	마 13:1-17	전교인
23(목)	윤성복/천현근	마 13:18-30	9교구
24(금)	문진호/황순선	마 13:31-43	3교구
25(토)	박요셉/박요셉	마 13:44-58	전교인
26(주)	박성덕/박성덕	마 14:1-12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 박성덕 목사
- * 금주 기도원 봉사 : 5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블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희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오전 8:30~오후 2:30	예꿈도서관(제1교 601호)
		예꿈돌봄실(제1교 701호)
		유다홀(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277	박가론	영아부	
2	0284	배주아	영아부	
3	0303	박시울	영아부	
4	0313	이필립	영아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304	최윤정	기본과정	정나혜
2	0305	박준이	유치부	정나혜
3	0306	박찬이	영아부	정나혜
4	0307	임현철	기본과정	이승순
5	0308	김호순	기본과정	이승순
6	0309	임예준	유치부	이승순
7	0310	오세탁	기본과정	박동진
8	0311	동용숙	기본과정	박동진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296	김수빈	기본과정	이명주
2	0312	김정호	기본과정	구본기

권사회 2월 월례회

일 시: 2월 22일(수) 수요예배 후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집사회 월례회

일 시: 2월 26일(주일) 12:10 장 소: 집사회 사무실

2월 장로기도회

일 시: 2월 24일(금) 금요일집회 후 장 소: 충현기도원

결혼

- 1. 지호현 군(지정록 안수집사·김재명 권사의 아들, 5교구)과 김윤주 양(김보금 씨의 딸) / 25일(토) 11:00 강동웨딩KDW 3층 마이다스홀
- 2. 양현석 군(양승환 씨·권태남 씨의 아들)과 윤혜원 양(윤병일 집사·오순옥 집사의 딸, 5교구) / 25일(토) 15:00 강동웨딩KDW 3층 마이다스홀
- 3. 백승운 군(백대원 타고 성도·고선옥 타고 성도의 아들)과 이유진 양(이삼연 집사·한혜원 집사의 딸, 1교구) / 25일(토) 14:00 온누리교회(양재동)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중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연양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성서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뱌열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서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의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2교구	이원용 소망부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초등부	신경철 사립부	임진실 신혼가정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후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광명대리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군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람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